

근현대 사진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인식 및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Archival Values and Use of Photographic Records of Modern Korea

김 성 희 (Seonghee Kim)*

심 지 선 (Jiseon Sim)**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근현대사진기록 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이용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그리고 실물적 가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를 설정하여 독립요인들이 어떻게 사진기록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물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추후 근현대 사진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modern photographic recor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95 potential users for photographic records in futur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included evidential value, informational value, usage value, intrinsic value. Dependent variable was selected as use intention for photographic records. The results of analysi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vidential value and intrinsic valu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use intention for photographic records in modern korea.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building archives for photographic record or for developing the policy for effective photographic records management.

키워드: 근현대사진기록, 이용의사,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실물적 가치

Modern Photographic Records, Use Intention, Evidential Value, Informational Value,
Usage Value, Intrinsic Value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eonghee@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 전공(shimjinim@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5월 29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245-261,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245>]

1. 서론

우리나라 사진기술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이후 개화기부터 도입되었다. 한국 근현대에는 서구 열강과 일제의 침입으로 파란이 가라앉지 않는 혼란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생산된 사진기록은 현재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증거로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근현대에 생산된 사진기록은 10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격동기를 증명하는 이미지 형태의 기록이다. 메타데이터의 신뢰성(reliability)과 무결성(integrity)이 보장된 사진기록은 존재 그 자체로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진기록의 이용자는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문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섬세한 정보 또는 원래 의도와 달리 예상치 못했던 귀중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은 보는 이에게 어떤 감정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감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근현대 사진기록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다.

사진기록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국립문서 기록 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디지털 사진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이 시대별·주제별로 쉽게 사진기록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잘 마련되어 있다(NARA 홈페이지). 캐나다 도서관 아카이브(LAC, Library

& Archives of CANADA)의 경우에는 산하에 특수 기록관리국(Canadian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Branch)을 두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관리하는 예술·사진과를 개설해 놓고 있다(CASCB 홈페이지). 그 외에 유럽의 사진기록 전문 기관에는 독일 연방기록원(Bundesarchiv) 필름아카이브(Filmarchiv), 아일랜드의 국립사진아카이브(Carlann Grianghrafadóireachta Náisiúnta), 뉴질랜드의 사진 아카이브(Photographic Archive)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해외 기록관리 기관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고 활발하게 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사이트의 디지털 사진아카이브는 자료검색 주제를 콘텐츠 유형별에 따르고 있어 사진부문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사진기록 검색이 불편하다. 한국사 연표에 맞춰 사진기록 열람을 서비스하는 항목에서는 근현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촬영된 사진이 없으며 근현대 말부터 현대로 넘어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사진기록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이용자 관심과 인식이 저조하여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아직 근현대 사진기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래된 연도에 생산된 근현대 사진기록의 입수는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과거의 사진기록을 수집 및 보존하는 해외 기관 사례들처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기관도 사진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근현대 사진기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게 된 근현대화의 기본

토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진기록의 잠재적 이용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지를 설문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러한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이용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결과는 근현대 사진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진기록의 개념과 가치

‘사진(photography)’의 어원은 ‘빛(photos)’과 ‘그리다(graphien)’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이현재 1991). 사진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들어 사용한 사람은 1843년 청사진을 발명한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존 허셜(John Herschel)이었다. 그는 동료 과학자였던 탈봇(William Henry Fox Talbot)과 함께 1835년에 사진 필름을 제작하면서 사진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SAA 기록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사진’이란 광화학 공정에 의해서 감광성 물질의 표면에 고정·형성되는 정지 영상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이미지로 정의되고 있다(Pearce-Moses 2005).

사진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사진은 원래 탄생하게 된 배경인 예술로서의 사진보다 사람들에게

계 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상업적 보도사진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에 따라 사진은 순간적인 역사적 현장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기록사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사진가들은 카메라를 들고 특종을 찾으려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섰다. 미국의 초상 사진가로 활약하던 매튜 브래디(Matthew Brady)는 1861년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동료 사진가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직접 전쟁사진을 촬영했다(Newhall 1949).

사진기록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사회적 사상과 사진사의 개인적 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용자의 사용 방법이나 필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거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미지 형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기록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나 증거로서 이용자의 감정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진기록은 생산자와 이용자의 생각이 시간대를 초월하여 공존한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록인 것이다.

근현대에서 현대로 접어드는 시기 동안 카메라 기술 역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1981년 일본의 소니(SONY)는 필름 대신 CCD를 장착한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의 시초인 마비카(Magnetic Video Camera, MAVICA)를 출시했다(정규만 2009). 이로써 사진기록은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현대의 시작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또는 1989년 냉전 종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주제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기록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개화기 이전에 세계 각처에 우리나라

와 관련된 근현대 사진기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범위는 1880년대 이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는 1980년 전후로 한정하였다.

사진기록의 가치는 크게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실물적 가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진기록은 조직·기능·활동 등에 대한 증거적 가치(Evidential Value)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진은 해당 조직에 의해서 생산된다(Ritzenthaler, Munoff, and Long 1984). 어떤 사실이 존재했거나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진기록을 다큐멘터리 사진(documentary photograph)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진기록의 이미지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증거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이용되는 상황과 관련된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Schwartz 1995). 사진기록의 증거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게 된 배경, 즉 맥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신뢰성(reliability)과 무결성(integrity)에 연관된다. 따라서 사진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장소·활동은 사진이 촬영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적 맥락에 의해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기록은 활동·시대·사건·장소 등과 같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Informational Value)를 가지고 있다. 사진 이미지에 사진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시각적 정보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생산된 문서나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진가는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카메라에 담

으며, 그 일부분마저도 사진가의 사상이나 촬영기법에 의해 필터링되어 이미지에 나타난다(Ritzenthaler and Vogt-O'Connor 2006). 다시 말해 사진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언뜻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촬영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동일한 장면을 촬영해도 사진가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로 사진기록을 수집하는 기록보존소는 사진기록의 출처가 불분명해도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사진기록을 컬렉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신 기록생산자가 정리하지 않은 인위적인 컬렉션은 증거적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증거적 가치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기록의 생산자와 원래 사진기록을 사용하기로 예상되는 이용자, 그리고 사용 방법이 밝혀져야 한다(Ritzenthaler and Vogt-O'Connor 2006). 현시대에 보급된 디지털 카메라는 내부에 GPS가 장착되어 있어 촬영장소와 시간이 사진에 메타데이터로 수록되지만 아날로그 카메라는 사진기록에 대한 생산자가 별도로 기입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진기록 생산자의 출처(provenance)와 생산자가 의도한 원질서(original order)의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용적 가치(Usage Value)는 원래의 생산목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적 분야의 연구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이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 인문학자들은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사진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로 인해 개축된 역사적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생

산된 사진기록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10일에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된 승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된 사진이 있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승례문을 복원하기 위해 1965년 이전에 촬영되었으며, 승례문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거나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수집한 사례가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9).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Intrinsic Value)는 기록 매체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유일성이나 연도, 물리적 성질, 예술적·심미적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Gibson 2001). 실물적 가치에 포함되는 예술적 가치는 기록의 지적 내용보다 물리적 또는 예술적 성질을 기반으로 한 유용성으로 정의되고 있다(Pearce-Moses 2005). 사진기록은 피사체가 기록된 필름이나 디지털 자료, 매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곧 이용자가 사진기록을 필요한 만큼 입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진 원본이 가지고 있는 희귀성과 유일성은 그 자체 그 자체로 실물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기록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실물적 가치란 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록이 지닌 독특한 형식이나 물리적 특성으로 비롯된 가치이며 기록관에서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식별할 때 적용되는 가치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실물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 해석하며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가치와 장래의 수익을 평가한 수익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는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술성, 수익성, 희귀성 등의 부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진기록은 미디어 창작물에 대한 참고 자료나 전시회 관람과 같은 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사진기록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사진기록의 가치가 근현대 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2 선행연구

우리나라 사진기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기록학 이론이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먼저 사진기록의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소영(2005)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크게 증거적 가치, 연구·이용의 가치, 재정적 가치로 분류한 뒤 각 가치에 따른 사진기록의 실제 활용사례를 조사했다. 연구자는 서구에서 정립된 사진기록 관리 연구에 비해 국내의 사진기록 연구는 사진학과 문헌정보학을 적용한 것들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진기록을 기록매체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기록학적 관점에서 사진기록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확립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박재건(2002)은 사진학적 관점에서 사진은 역사의 함축이기 때문에 역사와 사진은 기록성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사진은 기본적인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투영하는 가치에 의거하고 있다는

논제를 전개하였다.

박치홍 외 2인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이 촬영한 사진기록 14만 컷에 대한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하여 사진기록의 기술 원리 중 ISAD(G)의 다계층 기술 원칙을 적용해 사진기록의 분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그들은 사진기록이 예술로서의 수집가치와 역사적 사건에 관련된 행정적·증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박치홍, 허희진, 안나 2008).

배은경과 박주석(2009)은 사진기록의 이미지 형태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사진기록 평가기준 제안을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를 분석했다. 그들은 사진기록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을 기능·내용·예술·이용·비용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그로부터 각 평가영역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25개의 평가요소를 도출했다. 또한 사진기록 평가업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인 사진기록의 기록학적 가치는 증거가치, 정보가치, 실물가치로 분류했다. 귀중한 자원으로로서의 사진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사진자료가 각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진기록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확립을 제안하였다.

윤은하(2015)는 역사적 증거로서 구축된 사진기록이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기록 매체로 구축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자에 따르면 기록 관리사가 해야 할 일은 사진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 텍스트와 맥락 간 관계를 살펴보고 역사적 사료를 참조하여 사진기록이 증거로서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기록에 대한 국외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사진기술이 근현대에 늦게 도입된 우리나라와 다르게 서구의 사진기록 이론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일찍 인식했기에 최근 발표되고 있는 학술 연구는 사진기록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내용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Lopes(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진기록 이용자들은 사진기록의 사실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기록보존소가 의도한 이미지 사이의 의미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사진기록의 정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맥락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Caraffa(2018)는 과학적, 학문적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사진기록을 다루기 위해 사진기록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계층 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Abilok(2018)은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정보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진기록 이용자는 개인의 주관적 직관, 도덕적 신념, 시대나 장소에 대한 역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식, 문화적 소양, 심미안,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상징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박주석(2011)은 1930년대 미국 다큐멘터리

기록사진(Documentary Photography)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 및 수용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국 기록사진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록 사진은 주제의식이 명확해야 하고 정확한 시대적 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경민(2002)은 1945년 이전에 생산된 사진 기록의 관리근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정부기록보존소 및 독립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인화사진과 유리건판(琉璃乾板, Gelatin dry plate)과 같이 다양한 매체의 사진기록 수량을 조사하고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기록문화유산, 근현대사연구의 토대, 대항이데올로기, 유물·유적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연구자는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은 중요한 역사기록물로서 의미가 있으나 사진자료가 정부 산하기관이나 개인 소장처 등에 분산·방치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양상현 등(2014)은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Griffis)가 수집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문화, 건축, 종교 등 다양한 학술적 분야에서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용 가능성을 증명했다. 사진 컬렉션의 상당수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 근현대 한국의 모습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서양의 연구이론에 근거하여 사진기록의 가치를 크게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실물적 가치로 분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사진기록에 대한 연구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 연구자들이 자국의 사진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현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진기록을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아카이브 기관이 없어 국내 연구자들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사진기록의 평가와 선별 및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사진기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사진기록, 특히 근현대기에 생산된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근현대 사진기록물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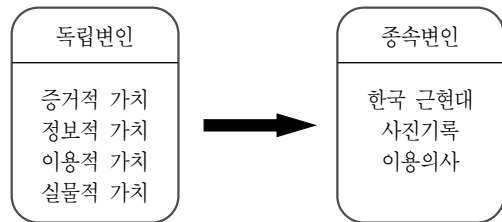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사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을 설계한 후, 사진기록을 이용할 것으로 가정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설문지 조사대상이 온라인 플랫폼 서베이 몽키에 의뢰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설문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직업과 1년 동안 기록관/박물관에 방문하는 횟수에 대한 선택형 질문을 작성하였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보기 위해 기록관/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유 및 사진기록을 전시 중인 기록관/박물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은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을 고려해 복수응답 질문으로 설계했다. 또한 사진기록의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 또는 활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는 기존의 연구 배운경과 박주석(2009), Ritzenthaler and Vogt-O'connor(200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증거적 가치, 이용적 가치, 정보적 가치, 실물적 가치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활용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사진기록물의 증거적 가치는 어떤 역사적 사고나 사건이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치이며 정보적 가치는 사진 이미지 상에 나타난 시각적 정보를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용적 가치는 사진기록물의 교육적 이용 또는 감상용 전시 등과 같이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치를 의미하며 실물적 가치는 사진 기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귀성 또는 예술성과 관련된 가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설문항목

조사 영역	설문 항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3문항
	박물관/기록관 이용 횟수	1문항
	박물관/기록관 방문 목적	1문항
	박물관/기록관 정보 경로	1문항
증거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근현대 사진은 역사적 사실의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	2문항
	한국 근현대 사진은 촬영이유나 목적이 확실할 경우 증거적 가치로 인정하는 정도	
정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근현대 사진은 근현대 문자기록보다 습득 정보량이 많은 정도	2문항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물은 개인의 이용목적에 정보적 가치로 기여정도	
이용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근현대 사진이 학습 및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도	2문항
	한국 근현대 사진의 이용은 미디어 창작물이나 생활속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정도	
실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근현대 사진의 원본이 가지고 있는 희귀성과 유일성에 대한 중요도	3문항
	한국 근현대 사진의 전시회는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정도	
	한국 근현대 사진의 예술적 가치는 중요정도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활용 의사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물을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는 정도	1문항
합계	9	16문항

- 증거적 가치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진기록물의 활용의사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정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진기록물의 활용의사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용적 가치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진기록물의 활용의사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실물적 가치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진기록물의 활용의사에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기록학 이론에 따라 사진기록의 가치를 증거적 가치·정보적 가치·이용적 가치·실물적 가치로 분류하여 각 가치별 특성에 관련해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문항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활용 의사에 관련된 문항을 배치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몽키(<https://ko.surveymonkey.com/>)를 통해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어 총 120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11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4.1%를 보였다. 최종적으로는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효한 총 9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먼저 설문 대상자의 인적 사항(성별, 연령, 직업)과 우선가치 순위 및 방문회수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근현대 사진기록물의 다양한 가치가 근현대 사진기록물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4. 데이터 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무작위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95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살펴보면 남성 65명(68.4%), 여성 30명(31.6%)로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2배가량 더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률은 20세 미만이 17명(17.9%), 21세 이상 30세 미만이 40명(42.1%), 31세 이상 40세 미만이 28명(29.5%), 41세 이상 50세 미만이 8명(8.4%), 50세 이상이 2명(2.1%)으로 2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주로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연령대가 20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에 따른 응답률은 학생 39명(41.1%), 공무원 6명(6.3%), 직장인 39명(41.1%), 자영업자 10명(10.5%), 전업주부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기타 직업이 10명(10.5%)으로 본 설문 조사의 응답자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근현대 사진기록 이용에 대한 분석

설문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록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횟수는 <표 3>과 같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30	31.6%
	남성	65	68.4%
	합계	95	100.0%
연령	20세 미만	17	17.9%
	21세 이상 30세 미만	40	42.1%
	31세 이상 40세 미만	28	29.5%
	41세 이상 50세 미만	8	8.4%
	50세 이상	2	2.1%
	합계	95	100.0%
직업	학생	30	31.6%
	공무원	6	6.3%
	회사원	39	41.1%
	자영업자	10	10.5%
	기타	10	10.5%
	합계	95	100.0%

〈표 3〉 1년 동안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이용을 위한 방문 횟수

구분		빈도	퍼센트
방문 횟수	1~2회	39	41.1%
	3~4회	25	26.3%
	5회 이상	11	11.6%
	거의 없음	20	21.1%
	합계	95	100.0%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1년 동안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39명(41.1%)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4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25명(26.3%)이며 거의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명(21.1%)으로 뒤를 이었고, 5회 이상 간다는 응답의 비율이 11명(11.6%)으로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국 근현대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박물관이나 기록관 방문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방문 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

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을 다중분석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록관/박물관 방문 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이용목적

이용목적	빈도	퍼센트
취미·여가생활	57	40.1%
지식·정보 습득	36	25.4%
문화체험 행사참가	30	21.1%
학교·기관 등 단체 관람	12	8.5%
과제	7	4.9%
전체	142	100.0%

취미·여가생활 위해서가 57회(4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항목은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서 36회(25.4%), 문화체험 행사참가를 위해서가 30회(21.1%)로 나타났다.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방문하는 빈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응답자들이 근현대사기록을 역사적, 증거적 가치 보다는 실물적 가치가 방문목적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직장 등 기관안내학교·기관 등 단체 관람을 위해서는 12회(8.5%), 과제를 하기 위한 목적은 7회(4.9%)라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선택됨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은 학교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타의로 방문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의사로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문화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기록관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설문 응답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소장 중인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문항 역시 복수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5>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소장 중인 기록관/박물관에 대한 정보 입수경로

경로	빈도	퍼센트
현수막·전단지 등 홍보물	33	18.1%
인터넷 광고	38	20.9%
신문·TV방송	17	9.3%
SNS 광고	43	23.6%
지인의 정보	32	17.6%
학교·직장 등 기관안내	19	10.4%
합계	182	100.0%

설문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소장 중인 기록관과 박물관의 정보를 접하는 경

로는 SNS 광고를 통한 방법으로 응답한 경우가 43회(23.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대중화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광고가 38회(20.9%), 현수막·전단지 등의 홍보물이 33회(18.1%), 지인으로부터의 정보 입수가 32회(17.6%) 순서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설문 대상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문·TV방송은 17회(9.3%), 학교·직장 등 기관안내는 19회(10.4%)로 복수응답 선택 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이 신문과 TV를 보는 경우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3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사진기록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는 크게 정보적 가치, 증거적 가치, 이용적 가치, 실물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활용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물적 가치에 대해 중요하다고 라고 인식한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증거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이 3.62, 정보적 가치 3.58, 이용적 가치 3.28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속변인인 이용의사에 대한 의견은 평균이 3.76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

요인	평균	표준화 편차	N
증거적가치	3.6211	.72095	95
정보적가치	3.5842	.67498	95
이용적가치	3.2842	.64269	95
실물적 가치	3.7842	.73533	95
이용의사	3.76	.808	95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근현대사진 기록 활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실물적 가치가 증거적,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는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수익성, 희귀성 등의 부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물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록이 지닌 독특한 형식이나 물리적 특성으로 비롯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진기록은 활동·시대·사건·장소 등과 같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Informational Value)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이용 또는 활용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모형요약에서는 R제곱량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의미하는 통계량이므로 여기서는 R²는 .536.536으로 나타나고 수정된 R제곱은 .28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은 1에서 3사이의 값을 보이면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1.986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결과 VIF가 10미만이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VIF값이 모두 1점대로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근현대 사진기록물에 대한 이용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보적 가치와 실물적가치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서 근현대 기록물 사진의 이용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값을 살펴보면 정보적 가치가 .302, 실물적 가치가 .311로 나타났다. 즉, 정보적 가치와 실물적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물의 이용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물적 가치가 정보적 가치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 근현대사진기록물의 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

〈표 7〉 근현대 사진기록물 이용의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B	표준화 오류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VIF	R ² = .536 수정된 R ² = .256 Durbin-Watson = 1.986
(상수)	1.200	.504		2.379	.019			
증거적가치	.091	.117	.081	.779	.438	.733	1.365	
정보적가치	.361	.136	.302	2.666	.009	.618	1.618	
실물적가치	.342	.118	.311	2.909	.005	.693	1.444	
이용적가치	-.110	.130	-.087	-.841	.403	.736	1.359	

종속변인: 이용의사

설 정보적 가치와 실물적 가치는 '근현대사진 기록물의 이용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거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는 근현대사진기록물 사용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요인으로는 실물적 가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될 일이 없는 증거적 가치와 다르게 실물적 가치는 우리가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응답자가 일반적이 사진기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증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보다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사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서도 살펴본 듯이 실물적 가치는 기록 매체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유일성이나 연도, 물리적 성질, 예술적·심미적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근현대사진기록이 기록의 지적 내용보다 물리적 또는 예술적 성질을 기반으로 한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활용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근현대사진기록의 사용의사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적 가치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진기록은 활동·시대·사건·장소 등과 같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Informational Value)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진 이미지에 사진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시각적 정보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생산된 문서나 자료 내에 포

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가 사진기록을 이용할 때 사진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도 첨부하여 제공되면 사진기록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적 가치로 사진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디지털 사진아카이브다. 많은 해외 기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관들도 현재 디지털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해 놓은 기관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사진기록의 열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대중에게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택 등 도처에 방치되어 있는 사진기록을 수집해 디지털 화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진기록물 보기위해 실제 방문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사진 기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후 근현대 사진기록 이용 또는 활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 하였다. 설문대상은 사진기록을 이용할 것으로 가정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록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횟수는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한국 근현대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박물관이나 기록관 방문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설문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방문 시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복수응답 분석한 결과 취미·여가생활 위해서가 57회(40.1%)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항목은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36회(25.4%), 문화체험 행사참가를 위해서가 30회(21.1%)로 나타났다.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방문하는 빈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이를 잘 활용하면 주말이나 휴일에 사람들이 기록관·박물관을 이용하여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설문 응답 대상자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 소장 중인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설문 SNS 광고를 통한 방법이 43회(23.6%)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광고가 38회(20.9%), 현수막·전단지 등의 홍보물이 33회(18.1%)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대중화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넷째,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 또는 활용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즉, 정보적 가치와 실물적 가치가 근현대 사진기록물의 이용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거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는 근현대사진기록물 사용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리 결과는 응답자가 일반적이 사진기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증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보다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사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진기록의 증거적 가치, 이용적 가치, 정보적 가치, 실물적 가치가 근현대 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주는지를 일반적인 사진기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증거적 가치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보다 사진기록의 실물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정보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근현대사진 기록의 사용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근현대사진기록이 기록의 지적 내용보다 물리적 또는 예술적 성질을 기반으로 한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활용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응답자들은 사진기록은 활동·시대·사진·장소 등과 같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Informational Value)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이나 기록관등 기관 방문을 염두에 두고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추후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진 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매체의 특성상 현재 수명이 거의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수집과 보존,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더 늦기 전에 한국 근

현대 사진기록의 수집과 디지털화가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기록의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승례문 복원 자료집』.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소영. 2005. 사진기록물에 대한 기록학적 이론정립을 위한 첫 번째 시도: 사진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18: 163-190.
- 뉴홀. 1949. 『THE HISTORY OF PHOTOGRAPHY』. 정진국 옮김. 파주: 열화당.
- 박재건. 2002. 역사와 사진: 기록 개념에 관한 새로운 의미. 『한국사진학회지』, 9: 110-121.
- 박주석. 2008. 사진과의 첫 만남: 1863년 연행사 이의익 일행의 사진 발굴. 『한국사진학회지』, 18: 50-61.
- 박주석. 2011. 한국 기록사진의 개념 형성과 전개. 『기록학연구』, 27: 169-208.
- 박치홍, 허희진, 안나. 2008. 사진기록물의 정리 및 기술에 대한 연구: 최민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57-274.
- 배은경, 박주석. 2009.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79-102.
- 양상현, 박소연, 유영미. 2014. 그리피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 사진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71: 7-50.
- 윤은하. 2015. Photographic Records in Archivalization. 『역사문화연구』, 50: 191-211.
- 이경민. 2002. 사진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 한국근대사 관련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4: 55-82.
- 이현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규만. 2009. 카메라의 페러다임 전환. 『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지』, 15(4): 25-26.
- Abilok, D. 2008. "Visual Information Literacy: Reading a Documentary Photograph."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36(3): 7-13.
- Craffa, C. 2018. "Photographs as documents/photographs as objects: photo archives, art history and the material approach." *Collection and Curation*, 37(4): 146-150.
- Gibson, G. 2001. *Glossary of Terms Related to the Archiving of Audiovisual Materials*. Paris: UNESCO.

- Lopes de Lacerda, A. 2012. "Photographs in archives: the production and meaning of visual records." *saude-Manguinhos*, 19(1): 283-302.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itzenthaler, M. L. and D. Vogt-O'Connor. 2006. *Photographs - Archival Care and Management*.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itzenthaler, M. L., G. Munoff, and M. Long. 1984.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 Schwartz, J. 1995.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s." *Archivaria*, 40: 40-74.
- Stott, W. 1986. *Documentary Expression and Thirties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웹 사이트]

- 국가기록원. [online]. [cited 2019.4.18].
〈<http://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yearRecord.do?year=1945>〉.
- ALIC. [online]. [cited 2019.4.18].
〈<https://www.archives.gov/research/alic/reference/photography>〉.
- BArch. [online]. [cited 2019.4.18].
〈<http://www.filmarchives-online.eu/les-partenaires/bundesarchiv-filmarchiv-barch>〉.
- IMF. [online]. [cited 2019.4.18].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online]. [cited 2019.4.18].
〈<https://www.collectionscanada.gc.ca/audits-evaluat18>〉.
- National Library Wellington. [online]. [cited 2019.4.18].
〈<https://natlib.govt.nz/collections/a-z/photographic-archive>〉.
- National Photographic Archive. [online]. [cited 2019.4.18].
〈<https://www.nli.ie/en/national-photographic-archive.aspx>〉.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E. and J. Park. 2009. "A Study on the Appraisal Criteria of Photographic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79-102.

- Jeong, K. 2009. "Paradigm Shift of Camera: Part. Computational Photography."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15(4): 25-26.
- Kim, So-Young. 2005. "A Study of Photographic Records from a Viewpoint of Archival Science - Focusing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hotographic." *Records Record Archive and Management*, 18: 163-190.
- Lee, H. 1991. *Eyclopedia of Korean Culture 1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Lee, kyung-Min. 2002. "A Study on the Situation of the Photograph Archive And the Necessi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14: 55-82.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 *Case Studies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 Heritage*.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ewhall, B. 1949. *The History of Photography*. Translated by Jin Kook Jung. Paju: Youlhwadang.
- Park, C., H. Heo, and A. An. 2008. "A Study on Arranging and Describing of Photograph Archives for Choi Min-Sik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257-274.
- Park, Jae-Gun. 2002. "History and Photography: New Meaning on the Concept Documentation." *Korean Journal of Photography*, 9: 110-121.
- Park, Ju-Seok. 2008. "A Study on the Origin of Korean photography." *Korean Journal of Photography*, 18: 50-61.
- Park, Ju-Seok. 2011. "The Facets of Korean Documentary Photograph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7: 169-208.
- Yang, S., S. Park, and Y. Yu. 2014. "The Significance of Korean Photos in the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at Rutgers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71: 7-50.
- Yoon, E. 2015. "Photographic Records in Archivalization."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50: 191-211.